

2022 페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2022
페루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신정부 출범(2021.7)에 따른 정책 변화	4
나. 생산 및 수출은 호조, 투자여건은 악화 전망	5
다. 금융·유통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6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1
2. 시장분석	13
가. 시장특성	13
나. 수출입 동향	14
다. 투자진출	15
라. 프로젝트	1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8
가. 교역	18
나. 투자	20
다. 프로젝트	21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6
3. 한-페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5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1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42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3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44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경제회복으로 '21년은 11.9%, '22년에는 3.4% 성장 전망
- 광업 활성화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22년 페루경제 3.4% 성장 예상(페루경제재정부(MEF), '21. 9월 기준)

- '21년은 코로나19 쇼크로부터의 회복으로 11.9% 성장 전망
 - 백신접종 확대,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수 감소로 경제활동 활성화
 - 제조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이 재개되면서 실업률 감소 전망
- '22년은 광업이 경제회복 선도 예상
 - 페루 경제재정부(MEF)의 거시경제 계획에 따르면, '22년에 시작되는 4개 광산 프로젝트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광물 가격의 상승, 생산량 회복세 등도 페루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은 과제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30.4	30.9	31.4	32.0	32.1	32.6	33	N/A
명목 GDP	십억 달러	191.3	194.7	214.4	225.4	229	203.77	228.02	235.77
1인당 명목GDP	달러	6,227	6,205	6,700	6,947	7,048	6,080	6,959	N/A
실질성장률	%	3.3	4.0	2.5	5.7	2.2	△11.1	11.9	3.4
실업률	%	6.4	6.7	6.9	6.7	6.68	12.79	10.3	8.2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3.2	1.4	2.2	1.9	2.0	5.0	2.6
재정수지(GDP대비)	%	-1.9	-2.3	-3.0	-2.3	-1.6	-8.9	-4.5	-3.1
총수출	백만 달러	34,414	37,020	45,422	49,066	47,688	39,311	43,989	46,804
(對韓 수출)	"	1,136	1,294	2,133	2,474	2,318	2,756	N/A	N/A
총수입	"	37,331	38,722	37,251	41,870	41,074	36,138	41,378	43,406
(對韓 수입)	"	1,217	1,155	914	803	744	485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916	1,888	6,700	7,197	6,615	3,173	2,611	3,398
경상수지	"	-9,526	-5,064	-2,779	-3,915	-2,154	1,583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19	3.38	3.26	3.29	3.34	3.49	4.10	4.2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9	12	5	0.2	8.96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1.2	55.8	67.7	64.9	88.9	9.8	52.3	41.6

주 : '21년은 추정치, '22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페루 중앙은행(BCRP), 페루 통계청(INEI), IMF, 한국무역협회('21년 9월)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 ▶ (경제) 생산 및 수출은 호조, 투자여건은 악화 전망
- ▶ (사회) 금융·유통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가. 신정부 출범(2021.7)에 따른 정책 변화

■ 신자유주의 탈피를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

- 개헌은 카스티요 행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
 - 카스티요 대통령은 정부역할 강화, 신자유주의 탈피를 위한 개헌 공약
 -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의회 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난항 예고

■ 보건, 교육 정책 강화

-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국립병원 건설 프로젝트 등 추진
 - 기존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하여 의료시스템 접근성 향상
- 교육 공백 문제 해결 및 교육 인프라 개선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을 이유로 국가교육 긴급사태 선포('21.8월)
 - 신규 학교 건립 및 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 개선 추진

■ 국가 전략산업 시설 국유화 정책 추진 가능성

- 카미세아 가스 광구 국유화 가능성 언급
 - 페루 정부는 저렴한 가스 공급을 위해 카미세아 컨소시엄과 계약 재협상 중
 - 재협상 미타결시 국유화 할 수 있다고 발표('21.9월)
 - 이러한 국유화 정책 추진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 우려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 정책방향 주요 내용〉

부문	내용
보건	전 국민 백신접종을 통한 팬데믹 극복,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교육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공백 문제 해결, 교육격차 해소, 교육 인프라 개선 등
경제	공공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해소, 고용 진흥 프로그램 추진 등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신규 철도 노선 건설 등
농업	농업보조금 지급, 농업 산업화, 농업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등
반부패	모든 반부패 법안 검토 및 부패 처벌 강화, 감사원 및 검찰 역할 강화 등
사회보장	여성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통합된 신규 의료보험 및 연금 시스템 개발 등
개헌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 반신자유주의 등

자료 : 페루 정부(www.gob.pe)

나. 생산 및 수출은 호조, 투자여건은 악화 전망

■ 광업·건설업의 빠른 회복 및 농업 비중 증가

- 광물 생산 증가 지속 예상
 - 페루 광물 생산량은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페루 중앙은행에 따르면 광물 생산량 증가율은 '21년 14.4%, '22년 4.8% 전망
- 건설업의 빠른 성장세
 - 페루 국내 인프라 개선 및 경제회복 등을 위한 여러 건설 프로젝트 추진
 - '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2%의 성장률 기록
- 농업 비중 증가
 - 페루 GDP에서 농림축산업의 비중은 '19년 5.4%에서 '20년 6.2%로 증가
 - 카스티요 정부는 농업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농민 대상 보조금 지급 등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힘.

■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전망

- 주력 수출품인 구리 가격 강세
 - 구리 국제 시세는 '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상승한 톤당 9천~9천5백 달러 수준 유지 중
 -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이 당분간 현상 유지 또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4년까지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전망
 - 광업 및 농업 부문 호조로 페루 무역수지는 '20년 6월 이후 흑자 지속
 - 경제조사기관인 포커스 이코노믹스(Focus Economics)에 따르면 이러한 페루의 무역수지 흑자는 '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對페루 외국인투자심리 위축 전망

- 국유화논란, 외투기업 증세, 환율상승 등 투자여건 악화
 - 카미세아 가스 광구 국유화 논란과 더불어 광업 분야 외투기업에 대한 증세 추진도 외국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환율상승에 따른 외국기업의 수익률 저하도 투자심리 위축의 또 다른 요인

다. 금융유통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 금융서비스의 보편화

- 취약계층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 '21년 6월 기준 페루 국민의 개인 계좌 보유율은 약 50%로 45%였던 '20년 대비 5%p 증가
 - 페루 경제재정부는 2030년까지 75% 달성 및 디지털 결제수단 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의 성장

- 전자상거래 매출규모 증가
 -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페루 전자상거래 매출규모는 '19년 약 40억 달러 규모에서 '20년 약 6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음.
 - 페루 전자상공회의소(CAPECE)는 '20년 한 해 동안 국내 온라인 결제 규모가 업종에 따라 전년 대비 최소 2배, 많게는 최대 20배 증가하였다고 발표

■ 보건·의료시장의 확대 지속

- 보건·의료 관련 국민 관심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 카스티요 대통령은 국가 보건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1년 9월 이후 하루 천 명 내외로 감소하면서, 방역용품보다는 의료기기·의약품 위주 수요 지속 전망

■ 기존 의료보험 및 연금 시스템 통합 추진

- 기존 시스템은 보험별로 의료서비스 격차 존재
 - 현재 페루 의료보험은 EPS(사설보험), EsSalud(일반보험), SIS(취약계층)로, 연금은 AFP(사설기관), ONP(국가에서 관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낮아 불만 야기
 - 카스티요 정부는 취임연설에서 이러한 보험 및 연금 제도들을 단일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카스티요 행정부의 정책 집행 난항 예상
- ▶ (경제) 환율 및 물가 상승 추세, 최저임금도 인상 전망
- ▶ (산업) 높은 광물 가격 및 경제 회복 등으로 산업 전반 성장세
- ▶ (정책) 비즈니스 환경 양호, 일부 품목 위생등록 제도 실시 중

가. 정치 환경

■ '22년 10월 2일 지방선거 실시

- 페루 전국 주지사, 시장, 구청장 등 선출 예정
 - 임기는 4년(2023년~2026년)이며, 중임 및 연임 가능(연임은 1회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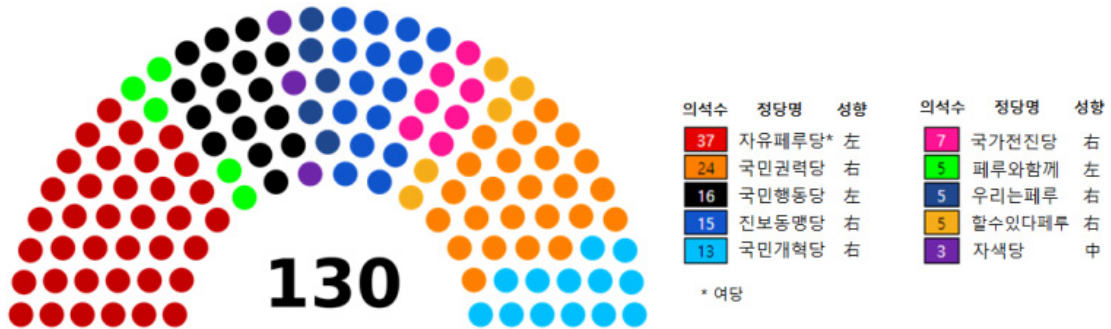
■ 산업시설 국유화 정책 추진 가능성

- 카미세아 가스 광구 국유화 가능성 언급
 - 카스티요는 대선 당시 국가 전략산업시설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 이후 철회한 바 있음.
 - 그러나 '21년 9월 카스티요 정부가 카미세아 가스 광구를 국유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산업시설 국유화 정책 재추진 우려 증가

■ 카스티요 행정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 전망

- 의회 내 야당 우세로 카스티요 행정부의 정책 집행 난항 예상
 -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고, 야당 의석수 우세
 - 진보성향인 카스티요 행정부의 정책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

〈페루 의회 의석수 분포도〉



자료 : 페루 선거관리위원회(ONPE)

나. 경제 환경

■ 달러-누에보솔 환율 상승 지속

- '21년 대선 이후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누에보솔화 가치 하락세
 - 산업시설 국유화 논란, 정치적 불안정 지속 등으로 달러-누에보솔 환율은 '21.1월 달러당 3.6솔 수준에서 8월 달러당 4솔 수준까지 상승
 - 현지 전문가들은 '22년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지속
 - 페루 중앙은행(BCRP)은 '21년에는 약 5%, '22년에는 약 2.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중저가 제품 수입수요 증가 전망

■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 '16년 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의 금리 인상
 - 페루 중앙은행(BCRP)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에서 9월에 1%, 10월에 1.5%로 두 차례 인상

■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카스티요 행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22년 최저임금 인상 추진
 - 페루 최저임금은 '18년 이후 4년간 월 930솔로 동결상태
 - 페루 경제재정부(MEF)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

〈페루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명목GDP	십억불(증감률%)	225.4(5.7)	229(2.2)	203.8(△11.1)	228(11.9)	235.7(3.4)
총수출	백만불(증감률%)	48,015(8)	46,454(△3.3)	41,669(△10.3)	43,989(11.9)	46,804(6.4)
총수입	백만불(증감률%)	43,190(8)	42,433(△1.8)	36,138(△15)	41,378(14.5)	43,406(4.9)
물가상승률(연평균)	%	2.2	1.9	2.0	5	2.6
환율(연평균)	Sol/US\$	3.29	3.34	3.49	4.10	4.25
금리(연평균)	%	2.8	2.6	0.7	1.5	N/A
최저임금(월)	Sol	930	930	930	930	930+α

* 2021년, 2022년 전망치 기입
자료 : 페루 중앙은행('21년 6월)

다. 산업 환경

광업

- 광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성장 지속 전망
 - 페루 전체 생산의 10%,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시세는 '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상승한 톤당 9천~9천 5백 달러 수준 유지
 - '20년 페루 광물 생산량 세계 순위 : 구리(2위), 은(2위), 아연(3위), 납(4위), 몰리브덴(4위), 주석(4위), 수은(5위), 금(6위)

건설업

- 도로,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장 지속 예상
 - '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
 - 친체로 신공항 건설, 중부지역 중앙고속도로 건설, 리마 교육센터 건립, 중부지역 신규학교 건설, 리마 국립병원 건설운영 등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농업

- 수출 호조 및 정부 지원 등으로 성장 지속 전망
 - 농산물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농업관계부(MINAGRI)는 '21년에는 4.7%, '22년에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카스티요 정부는 관개시설 투자, 농업 보조금 지급 등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힘.

〈페루 산업별 동향〉

(단위 : 백만 누에보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1-6월)		
	금액	성장률	비중	금액	성장률	비중	금액	성장률	비중
제조업	70,098	△1%	13%	60,707	△13%	13%	35,363	37%	13%
광업	66,255	0%	12%	57,541	△13%	12%	29,799	16%	11%
상업	56,850	3%	10%	47,880	△16%	10%	26,159	34%	10%
건설업	32,126	2%	6%	27,578	△14%	6%	18,447	102%	7%
농림축산업	29,487	3%	5%	29,867	1%	6%	16,465	0%	6%
금융·보험업	25,568	5%	5%	28,936	13%	6%	15,726	14%	6%
정보통신업	25,323	7%	5%	29,576	17%	6%	14,506	9%	5%
공공·국방	28,090	3%	5%	29,272	4%	6%	14,192	5%	5%
운송·창고업	30,887	3%	6%	22,605	△27%	5%	13,114	19%	5%
에너지	10,292	4%	2%	9,665	△6%	2%	5,205	13%	2%
숙박·요식업	17,634	5%	3%	8,775	△50%	2%	5,044	17%	2%
기타	153,798	3%	28%	133,088	△13%	27%	75,492	15%	28%
총계	546,408	2%	100%	485,490	△11%	100%	269,512	21%	100%

*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페루 통계청(INEI)

라. 정책·규제 환경

■ FTA 의존도가 높은 시장

- 수출의 96%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
 - 무역협정 체결현황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등 53개국 이상
 - 터키, 인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과의 FTA 협상 마무리 예상
- * 다자간 협정 :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Pacific Alliance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 보건·의료 품목 및 식품은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제도 시행 중

- 해당하는 품목들은 수입 전 위생등록 필수
 - 수입업체에서 페루 무역 온라인 창구(VUCE, www.vuce.gob.pe)를 통해 진행하며, 위생등록 인증서가 있어야 통관 가능
 - 비용 및 소요기간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상이

〈위생등록 담당 부처〉

부처명	홈페이지	담당품목
의약품 관리국 (DIGEMID)	www.digemid.minsa.gob.pe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환경보건국 (DIGESA)	www.digesa.minsa.gob.pe	식품, 음료 등

자료 : KOTRA 리마무역관

■ 2021년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중남미지역 내 상위권 위치

- 브랜드 보호지수는 중남미 기준 5위
 - 0.555점(1점 만점)으로 중남미 기준 5위, 전 세계 기준 61위
 - 멕시코(0.699), 브라질(0.601), 우루과이(0.59), 콜롬비아(0.574), 페루(0.555) 순
- 특허권 보호지수는 중남미 기준 3위
 - 3.633점(6점 만점)으로 중남미 기준 3위, 전 세계 기준 42위
 - 칠레(4.638), 멕시코(4.185), 페루(3.633) 순

■ 중남미에서 5번째로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 비즈니스 환경 순위 중남미 5위, 전 세계 76위 차지
 - 2020년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 따르면 칠레(59위), 멕시코(60위), 콜롬비아(67위), 코스타리카(74위), 페루(76위) 순

2. 시장분석

- ▶ (시장특성) 풍부한 광물자원, 안정적이고 수입수요가 높은 시장
- ▶ (수출입) 중국과 미국이 최대 교역국, 광물 및 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음
- ▶ (투자진출) 매력적인 광산업 투자 대상국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
- ▶ (프로젝트) '21년 좌파정권으로 교체 이후 프로젝트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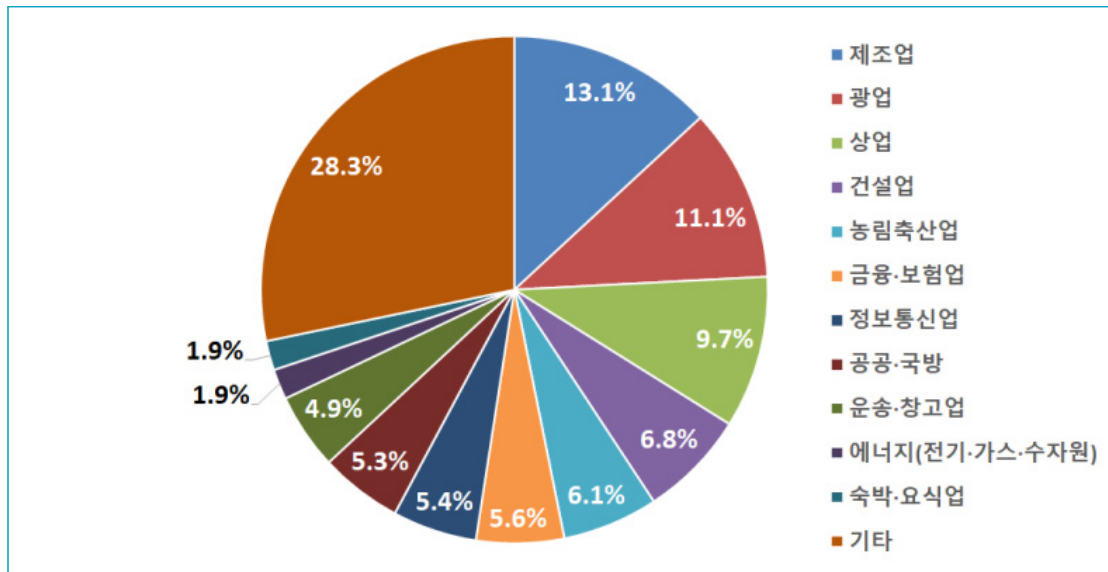
가. 시장특성

■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 페루는 세계적인 수준의 광물자원 보유국
 - 페루는 2019년 전세계 매장량 기준 은(銀) 17%(1위), 구리 10%(2위), 아연 12%(3위), 금 4%(7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1년 1~6월 기준 광업은 전체 GDP의 약 11.1% 차지

〈2021년 1~6월 기준 페루 GDP 구성〉

(단위 : %)



자료 : 페루 통계청('21년 8월)

■ 중남미 진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시장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시장
 -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시장
 - 수도권 인구 1,000만 명, 신흥 중산층의 부상
 - 높은 수입수요 및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적은 수입규제

나. 수출입 동향

■ 페루 對세계 수출입 현황

- 국가별
 - (수출) 전체 수출 중 미·중 비중이 약 46% 차지 ('21.1~7월 기준)
 - * '13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페루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음
 - (수입) 전체 수입 중 미·중 비중이 약 47% 차지 ('21.1~7월 기준)
- 품목별
 - (수출) '21년 1~7월 기준 광물 및 농수산물 위주임.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구리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고, 철광석은 219% 증가
 - (수입) '21년 1~7월 기준 석유 제품이 전체 수입의 약 10%를 차지함. 경제회복으로 휴대폰, 승용차, 화물차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페루 주요 수출품목('21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2019		2020		2021(7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12,243.8	△5.8	11,106.9	△9.3	7,578.4	45.0
2	7108	금	6,986.9	△2.4	6,604.5	△5.5	4,326.8	30.8
3	2601	철광과 그 정광	978.1	101.9	1,125.8	15.1	1,393.4	218.9
4	2301	어분	1,526.4	△3.5	1,193.6	△21.8	1,249.9	104.6
5	0804	아보카도 망고	1,022.4	△3.6	1,055.0	3.2	1,152.1	37.5
6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1,620.8	△11.9	1,793.1	10.6	1,111.5	12.4
7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634.8	△24.6	1,291.4	△21.0	951.2	58.4
8	2607	납광과 그 정광	997.9	△5.5	869.2	△11.1	663.0	33.7
9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624.7	16.9	723.6	15.8	560.0	74.2
10	0806	포도	877.6	8.4	1,037.2	18.2	517.6	23.2
총계			46,454.1	3.25	41,669.0	△10.3	29,163.4	44.6

자료 : 페루 관세청(SUNAT)

〈페루 주요 수입품목('21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2019		2020		2021(7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0	석유와 역청유, 폐유	3,230.3	△12.1	2,247.3	△30.4	2,183.5	81.1
2	8517	무선통신전화기	1,457.0	△1.5	1,239.6	△14.9	1,042.4	77.9
3	2709	원유	2,482.7	△13.4	776.6	△68.7	874.8	56.2
4	8703	승용자동차	1,475.5	△0.7	919.7	△37.7	830.0	102.2
5	8704	화물자동차	1,014.7	24.3	778.7	△23.3	768.0	134.5
6	8471	노트북 및 주변기기	785.9	9.2	982.6	25.0	767.7	92.2
7	1005	옥수수	784.4	14.7	778.7	△0.7	617.4	40.5
8	2304	대두유 추출물	466.7	△12.0	494.4	5.9	384.5	28.9
9	8429	중장비	521.0	23.9	366.4	△29.7	369.2	94.8
10	1001	밀과 메슬린	512.6	△4.8	564.1	10.0	367.1	12.3
총계			42,432.9	△1.8	36,138.0	△14.8	28,142.1	44.5

자료 : 페루 관세청(SUNAT)

다. 투자진출

■ 투자진출 동향과 유망분야

-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안정적인 국가 신용등급 보유
 - '21년 9월 기준 페루는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

〈2021년 9월 기준 중남미 국가 신용등급 상위 5개국〉

	S&P	MOODY'S	FITCH
칠레	A	A1	A-
페루	BBB+	Baa1	BBB+
멕시코	BBB	Baa1	BBB-
우루과이	BBB	Baa2	BBB-
파나마	BBB	Baa2	BBB-

자료 : KOTRA 리마무역관

- '22년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예상
 - 페루 중앙은행(BCRP)에 따르면 '21년에는 경제회복으로 약 52억 달러의 FDI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나 '22년에는 약 42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산업시설 국유화 논란, 환율상승 등이 투자심리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투자 유망분야

- (광업) 페루는 '19년 전세계 매장량 기준 은(銀) 17%(1위), 구리 10%(2위), 아연 12%(3위), 금 4%(7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광업 투자지임.
- (농업) '20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유망품목으로는 사탕수수,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아티초크, 포도, 아보카도, 녹두, 마카 등이 있음.
- (관광) 마추픽추 등 다양한 관광명소와 최적의 자연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미식 관광지로 급부상함.
- (교통) 리마상공회외소(CCL)에 따르면 페루 전국 300여개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및 추진 중이며, 전체 규모는 720억 달러에 달함.

■ 투자 관련 주요 경쟁국

● 스페인, 영국, 칠레, 미국이 주요 투자국

- 2021년 상반기 기준 페루 투자는 스페인(18%), 영국(17%), 칠레(13%), 미국(12%)순임.
- 스페인은 주로 통신 및 에너지, 영국은 광업 및 서비스업, 칠레는 금융 및 상업, 미국은 제조업 및 석유 분야 투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라. 프로젝트

■ '21년 좌파정권으로 교체 이후 프로젝트 추진 재검토

● '21년 프로젝트 시장 현황('21.10월 기준)

- '21년 상반기, 도로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으나 하반기에는 중단 추세
- '20년부터 G2G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리마메트로 3·4호선이 상반기까지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22년 하반기 신정부부터는 사업 재검토 중
- 중앙고속도로 정비 G2G 프로젝트(프랑스 수주)는 사전타당성 평가, 영향 평가 등 연계사업 발주 중

● '22년 프로젝트 시장 전망

- '21.7월부터 정권을 잡은 진보성향 카스티요 정부는 보건, 교육,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두된 보건인프라 시설 미비와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1~'22년 종료 예정인 일부 대형 광산 프로젝트에는 지속적인 민간투자가 유입될 예정이나,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여타분야 투자는 감소 예상('21.10월 기준, Gestion지)

〈2021-2022년 주요 PPP 프로젝트 리스트〉

(단위 : 백만 달러)

발주처명	프로젝트명	발주 규모	단계	일정
교통통신부 도로청(Provias)	신중앙고속도로 교통사회경제영향평가 수행	0.16	입찰중	'21.10월 공고
교통통신부 도로청(Provias)	신중앙고속도로 사전 타당성평가 수행	미정	발주준비	'21.11월 공고
투자청 (Proinversion)	리마 학교 인프라 건설	227	발주준비	'22년 공고
투자청 (Proinversion)	중부지역 신규 건립학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66	발주준비	'22년 공고
투자청 (Proinversion)	리마 교육센터 건설 및 부가서비스 운영	75	발주준비	'22년 공고
투자청 (Proinversion)	중부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장개선	172	발주준비	'22.10월 공고
보건부 (MINSA)	Hipolito Unanue 국립병원 건설운영	250.2	발주준비	'22.10월 공고

주 : 투자청(Proinversion)은 페루 PPP 프로젝트 주관기관

자료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및 무역관 보유 자료('21년 10월)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외제

가. 교역

■ FTA 효과로 양국 간 교역 규모 증가

- 2011년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
 - '11년 FTA 체결 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6% 성장
 - '21년 1-8월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규모는 약 5.65억 달러로, 페루 전체 수입시장의 약 1.8% 점유(13위)
 - 對페루 수입액은 약 22.7억 달러로, 페루 전체 수출시장의 약 5.8%를 점유하여 중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4위를 차지
- * 페루는 주요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3개국과 FTA를 체결 중임.

■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 한국의 對페루 수출입 동향('21.1~8월 기준)
 - (수출) 5.65억 달러 기록하여 '20년 동기대비 88.2% 증가
 - (수입) 22.74억 달러 기록하여 '20년 동기대비 29.0% 증가
 - (수지) 17.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입 동향('21.1~8월 기준)
 - (수출) 코로나19 감소로 방역물품·백신(3002)은 1위에서 6위로 하락하였으나, 승용차(8703) 수출은 159.3% 증가하였고, 건설·인프라 재개에 따른 화물차(8704), 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따른 석유화학(3902, 3901) 수출도 크게 증가
 - (수입) 전체 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는 10% 증가하였으며, 이 외 광물, 석유제품, 농수산물 등의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함.
 - 참고로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 중 페루산 광물의 비중은 귀금속광(2616, 25.2%), 아연(2608, 22.5%), 납(2607, 19.2%), 구리(2603, 18.9%) 등임.

〈한국의 對페루 수출통계('19~'21.8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743.7	△7.4	2,318	△6.3	-1,574.3
2020년	485.3	△34.8	2,756.3	18.9	-2,271
2021.8월	565.4	88.2	2,273.9	29.0	-1,708.5

*'21년 8월 통계기준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21년 8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2019		2020		2021(8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54.7	△11.6	9.7	△82.2	79.1	2,164.9
2	8703	승용자동차	154.1	△14.8	40	△74.2	69.9	159.3
3	3902	프로필렌 중합체	14.2	△61.2	24.8	75.1	35.3	222.8
4	3901	에틸렌 중합체	11.9	△68.9	15.4	28.9	34.5	509.6
5	8704	화물자동차	44.5	△2.7	39.4	△11.4	33.4	131.0
6	3002	방역물품·백신	31.3	54.5	41.4	32.2	26.2	△32.1
7	8708	자동차부품	30.4	△4.2	20.8	△31.3	22.9	81.7
8	8429	중장비	19.4	△11.7	11.1	△43.1	21.4	177.8
9	8702	승합차	20.8	△4.1	5.6	△72.9	16.6	329.3
10	2523	시멘트	15.8	110.7	1.5	△2.2	16.2	160.5
총계			743.7	△7.4	485.3	△34.8	565.4	8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 對페루 주요 수입품목('21년 8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2019		2020		2021(8월까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603	동광과 그 정광	539.7	△5.8	914	69.3	784.1	31.5
2	2711	석유가스, 탄화수소	568.7	13.4	680.6	19.7	404.2	△15.2
3	2607	납광과 그 정광	321.9	△18.0	394.7	22.6	299.4	21.0
4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329.8	△28.0	251.2	△23.8	261.2	90.1
5	2710	석유제품(원유제외)	37.6	△38.7	42	11.6	87.7	240.2
6	7401	구리매트·시멘트동	14.6	84	14.5	△0.7	78.7	568.6
7	2616	귀금속광과그정광	41.2	△26.4	44	7.1	49.0	154.3
8	1605	갑각류·연체동물	89.5	△11.9	86.8	△3	47.7	19.3
9	0804	아보카도·망고	19.7	57.5	30.9	57	43.2	77.8
10	0307	오징어	81.1	118.4	60.6	△25.3	31.6	53.9
총계			2,318	△6.3	2,756.3	18.9	2,273.9	2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 대 페루 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페루 해외직접투자는 '20년 약 2.69억 달러를 기록
 - 광업에 대한 투자가 약 2.67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99%)을 차지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투자의 대부분이 원자재에 몰려있음.
 - 제조업의 경우, 페루가 저가 선호시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입대체산업의 투자가능성이 부각되지만, 시장규모, 현지 인력, 인프라, 유통구조,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페루의 대한국 투자는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음.

■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원자재 관련 현지 직접투자가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주춤
 - 비철금속 기업인 L사는 현지 기업과 장기구매계약 체결, 안정적 공급선 마련
 - 또 다른 비철금속 기업인 K사도 현지법인과 투자를 통해 광산 운영 중
 - 정유기업인 S사는 페루 남동부 카미세아 가스 광구 등에 투자

* '19년 가스전 지분 매각을 결정하였으나 페루 정부의 승인 지연 상태('21.10월 기준)

■ 우리기업 투자 성공사례 : L사(동광산 투자)

- 한국의 주요 비철금속 기업인 L사는 페루 광산기업 민수르와 약 10억 달러 규모의 '미나 후스타 동광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18.9.11.)
 - 계약기간 총 10년, 계약규모 56만 톤으로 매년 5~6만 톤의 동정광 공급
 - 동 협약 관련 부가수익으로 인근에 세워질 습식제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동 총 15.6만 톤의 판매 권리도 획득함.

〈2020년 우리나라 對 페루 투자 현황〉

업종	투자신고건수	투자금액(천 달러)	비중
광업	2	266,702	99.18%
도매 및 소매업	3	1,050	0.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029	0.38%
농업	8	110	0.04%
제조업	1	12	0.004%
건설업	1	0	0%
합계	14	268,903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프로젝트

● 페루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형태

- (G2G) 중남미 타국 대비 정부재정 확보가 용이하며,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높아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G2G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 인프라(철도·도로) 건설 및 재건 등을 G2G로 추진한 사례가 있음.

〈주요 G2G 프로젝트 리스트('21.10월)〉

일시	분야	프로젝트명	수주국가	현황
'15년	문화	판아메리칸게임 PMO	영국	종료
'15년	방산	내무부 순찰차 납품	한국	종료
'15년	방산	SIMA 국영조선소 다목적함(LPD) 건조	한국	종료
'17년	방산	공군 훈련기(KT-1P) 납품	한국	종료
'19년	인프라	교통통신부 친체로 공항 PMO	한국	종료
'20년	인프라	북부재건사업 PMO	영국	종료
'20년	보건	병원재건사업 PMO	프랑스	종료
'21년	인프라	중앙고속도로 건설 PMO	프랑스	종료
'21년	인프라	리마메트로 3·4호선 건설 PMO	-	일시중단
'21년	방산	내무부 경장갑차·물대포차 구매	-	일시중단
'21년	방산	해군기지 이전사업 설계	-	일시중단
'21년	방산	육군 사이버보안센터(잠정)	-	제안서 제출

자료 :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 (PPP) 그 외 인프라, 수자원(상하수·오수처리 시설), 에너지 개발 및 송배전, 의료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는 PPP(민관공동투자) 또는 민간주도투자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며, 수주 후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진행됨. 원활한 수주활동 및 시공, 운영을 위해서는 페루 현지기업과 외국 기업을 아우르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기업 진출 성공사례 : H사(건설)

●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성공적 페루 진출

- 경쟁력 있는 현지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현지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
- 계약 협상 시 기술이전 등을 주요 사안으로 내세워 발주처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2G 연계 주요 건설계약 2건 연속 수주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 G2G사업 추진

- 리마메트로 3·4호선 공사 PMO 재개여부 미정('21.10월 기준)
 - (사업내용) 교통통신부(MTC) 교통청(ATU) 발주 리마시 지하철 프로젝트
 - '19년 수주에 성공한 친체로 국제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사업관리 방식인 PMO*로 진행 예정
 - (현황) '21.6월부 프로젝트 일시중단, '22년 재개여부 미정
- * Project Management Office로, 발주처를 대신해 프로젝트 전단계를 총괄하여 관리함.

■ 방위산업 협력

-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한-페루 방위산업
 - KT-1, 다목적함 등 고부가가치의 방위산업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한 편
 - 현지 라이선스 생산 등 기술이전 조건이 수주에 결정적인 기여
 - 페루 최대 방산전시회(SITDEF) 주요 한국기업 3회 연속 참여('17, '19, '21)
- 주요 수요품목
 - (내무부) '21년 추진했던 경장갑차, 물대포차 등의 입찰은 '22년으로 연기
 - (국방부) 육군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 (해군) 해군기지 이전사업 설계 관련, '20년 12월 G2G로 최초공고가 되었으나 '21년 일시 중단되었고, 현재 프로젝트 재개여부 검토 중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사 중 치안강화 및 ICT 개발 언급
 - 현 정권 우선 관심사인 치안 및 교통체증 개선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예정
 - 지자체의 주요 치적으로 스마트시티 등 IT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
 - 스마트시티 관련, 대사관 및 코이카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 KOICA 협력의제(ODA 등)

- 페루 정부 디지털 전환 지원
 - 취약계층 건강보험(SIS) 처리절차 자동화,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 고고학 부동산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 페루 환경관리 역량강화 지원
 - 운영 중인 광산의 광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광산지역 오염배수 처리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설치 및 기술교육
 - 쿠스코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지원
 - 페루 내 주요대학들과 KOICA 스타트업 리그 개최 및 혁신네트워크 출범

Ⅲ.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광업·농업·건설업 분야 밸류체인 진출 지원
- ▶ 온라인 유통망, 보건의료산업 등 신규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도전 필요
- ▶ 지리적·심리적 원거리 보안을 위한 화상상담 강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류 인지도 제고에 따른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 주요 화학제품 생산국으로서의 높은 인지도 ❖ 프로젝트, 방산 G2G 강국으로의 성장	❖ 언어장벽 및 지리적, 심리적 원거리 ❖ 프로젝트 분야에서 유럽, 미국 대비 경험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광업·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 과실류, 건과류 등 농수산업 생산 확대 ❖ 전자상거래, 보건의료 신시장 확대	❖ 친환경 정책 등으로 중고차 규제 심화 ❖ 보건위생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 대응 미흡 ❖ 부정부패와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기회 활용)	• 디지털 유통망을 통한 한류 소비재 수요확대 • 배달업 활성화로 합성수지제품 수요증가 • 광산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중장비 니즈 충족 • 광업, 농업분야 주요 MRO업체 발굴	①디지털 플랫폼 유통망 진출 ②플라스틱 수요대응 ③광산설비 판매 ④광업·농업 MRO 진출
ST 전략 (위협 회피)	• G2G, 방산, ICT 등 강점이 있는 프로젝트 분야 진출 • 다년간 G2G사업 참가 노하우를 이용	⑤G2G 연계사업 ⑥방위산업 진출지원 ⑦스마트시티 활용 진출
WT 전략 (약점 최소화)	• 중고차 규제로 기존 차량 유지 보수 수요 증가 • 방역강화 관련, 의약품 및 방역시장 활성화	⑧자동차부품 시장 공략 ⑨보건의료산업 진출
		⑦교육·보건 프로젝트 수주 ⑧화상상담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① 디지털 플랫폼 유통망 진출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유통망 등 비대면 디지털 거래 활성화 - 대형 유통망 입점을 통한 진출
② 플라스틱 수요대응	- 식품배달업 급성장으로 합성수지 일회용기 수요 증가 -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 대응 필요
③ 광산설비 판매 ④ 광업·농업 MRO 진출	- 광산소유기업의 건설중장비에 대한 니즈에 부응 필요 - 고산지대에 알맞은 중장비 및 A/S제공 필요 - 광업, 농업분야 밸류체인 및 주요 MRO*시장 공략 - 국가 주요산업을 연계시킨 페루 진출전략 수립
⑤ 자동차부품 시장 공략	- 중고차 수입 규제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 한국브랜드의 시장점유율 높여 부품수요 다대
⑥ 보건의료산업 진출	- 보건의료제품의 가격경쟁력+안전성 마케팅 필요 - 한국의 의료선진국 지정, 참조약전** 등록으로 등록 간소화
⑦ 교육·보건 프로젝트	- 교육 및 보건 인프라 시설 건립에 집중 - 신정부 역점 분야로, 우리기업 진출 지원 강화
⑧ 화상상담	- 지리적·심리적 원거리 보완을 위한 화상상담 강화 -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 유행, 화상상담 건수 강화 필요
분야별 페루 진출 차별화	- 비대면 마케팅 강화로 상담 공백 최소화 - 코로나19로 변화된 산업구조 파악 및 대응

* 기업 운영을 위한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 대한민국 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으로 등록되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등록이 간소화되었음.

2-1. 디지털 플랫폼 유통망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페루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 약 6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대비 50% 성장
* 주로 일반 식료품 및 온라인 교육이 시장을 점유(자료원 : 페루 e커머스상공회의소)
- 한류 문화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요 증가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Pop, K-드라마의 급증하는 인기로 한국 소비재 관심도 증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재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통망 진출 지원 벤더와의 협업으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
 - 본사추진 해외 유통망 협력사업 참가로 신규입점 및 판촉지원
 -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한류박람회 등에 참가 바이어 유치

2-2. 플라스틱 수요대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페루 석유화학 시장은 '21년 8월 기준(HSCode : 39류) USD 16.2억의 수입시장
- 강점이 있는 제품군으로 노련한 전략을 갖고 진출이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로 식료품의 비대면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수요 대폭 증가
 - 전년대비 스티로폼 등 일회용기 합성수지 수입이 26.4% 증가('21.9월 기준)
 -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내수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동 품목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예상
- 프로필렌(수입3위), 에틸렌(수입5위) 등이 한국제품 중에서는 강세
 - 전반적으로 우리기업 석유화학 제품은 증가추세를 유지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격 및 납품기간 우선의 시장이나 노련한 대처 필요
 - 가격·기간요인이 주요하여 브라질, 콜롬비아 등 근접국 수입량이 많은 편임.
- 적극적인 상담주선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요 창출
 - 관련 한국 전시·수출상담회에 방한바이어 유치, 화상상담 주선으로 마케팅 확대

2-3. 광산설비 판매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제회복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련 시장 확대 전망
- 고산 지역 운용 가능한 중장비 조달여부가 중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광업은 2021년 페루 GDP의 11%를 차지하는 주요산업
- 저가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한국산 중장비 수요 발생
 -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 가성비 높은 한국산 중장비 선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고산에서 운용 가능한 중장비 조달 가능여부가 중요한 요건
 - 특히, 현지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A/S 가능 여부 중요
 - 해당 내용 이행 가능한 에이전트와 계약,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광산용 건설중장비 기기(유압브레이커 등) 및 제반 부품이 유망

2-4. 광업·농업 MRO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광업 및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페루 내수 인프라는 부족하여 우리기업에게 기회
- 정부 지원금 등 해당 분야의 주요 트렌드 분석이 선행되어야 MRO 시장 공략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페루 광업과 농업은 수출 증가
 - '21.7월까지 구리·납광류는 67.6%, 아보카도·포도류는 30.4% 성장세를 보임.
-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
 - 전체 GDP의 11%(광업), 6%(농업)를 차지하며, 각 산업의 내수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타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페루 광업 및 농업분야의 주요 트렌드 분석
 - 주요 분야의 시장조사를 통해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필요로 하는 MRO에 대한 분석 가능
 - 정부 지원금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 및 세부분야 분석에 따른 유압브레이커, 트랙터 등 한국이 강세인 품목으로 공략

2-5. 자동차부품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고차 수입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과세율이 높아져 페루로의 중고차 수출 난항
- 신차의 경우는 한국 브랜드 판매량이 높아 기본적인 수요는 높은 편임.
* '20년 기준, 22,037대(현대·기아, 쌍용은 제외) 판매로, 일본(36,531대)에 이어 2위 기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고차 수입규제 요건 및 과세율 상승에 따른 수출 어려움 직면
 - '20.2월부 수입요건 강화(연식 2년 이하, 특별소비세 인상(30→40%))
- 자동차부품 제품 및 가격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활발한 경쟁
- 연식이 높은 차량에 대한 부품 수요가 높음.
 - 중고로 수입되어 온 단종된 차량에 대한 부품 요구가 많은 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고차 수입규제로 인해 페루 자동차부품 시장 활성화 전망
 - 수입규제로 노후차량 교체가 어려워져, 차량부품 수요증가 예상
- 지사화 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 강화
 - 자동차부품 지사화 기업 대상 지방 바이어 중심 마케팅 확대

2-6. 보건의료산업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페루 의약품시장은 '21년 8월 기준(HSCode : 30류) USD 6.35억의 수입시장 형성
- 한국제품에 대한 등록절차가 단축되어 진입장벽이 낮음
 - * 안데스 공동체 내 인증 공유로 인근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으로의 진출이 용이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15년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의료제품 등록절차·시간 단축
- 코로나19 이후 K-방역에 대한 신뢰도 상승
 - 한국 방역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증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높아진 한국산 제품 관심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이 중요
 - 분자진단키트, 산소발생기 등 고부가가치 방역물품 수요대응에 집중 필요
 - ODA 기금 혹은 국제기구 활용 진출 고려 가능
 - 한국기업에 친화적인 인증제도 관련 품목별 정밀 조사 필요
-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상담회 및 웨비나 사업 활용 진출

2-7. 교육·보건 프로젝트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및 보건 프로젝트 다수 발주 예정
-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 중이므로, 정보 조기입수가 중요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사 주요 포인트로서 교육 및 보건 인프라 지목
 - 리마-지방 간 지역균형을 위해 교육 보건 분야 집중
- 국제기금을 통한 약 30억 달러 규모 차관 예정
 - 교육·보건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으로 발표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네트워킹, 관련기관 웨비나 참가를 통한 프로젝트 정보 조기입수
- G2G, PPP 등 주요 프로젝트 진행형태 분석을 통한 입찰 준비
- 기존 수주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성공·실패 요인분석

2-8. 지리적·심리적 원거리 보완을 위한 화상상담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비대면 마케팅의 대표적인 도구로서 떠오른 화상상담
 - 시간·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며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 양적·질적 화상상담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경로 활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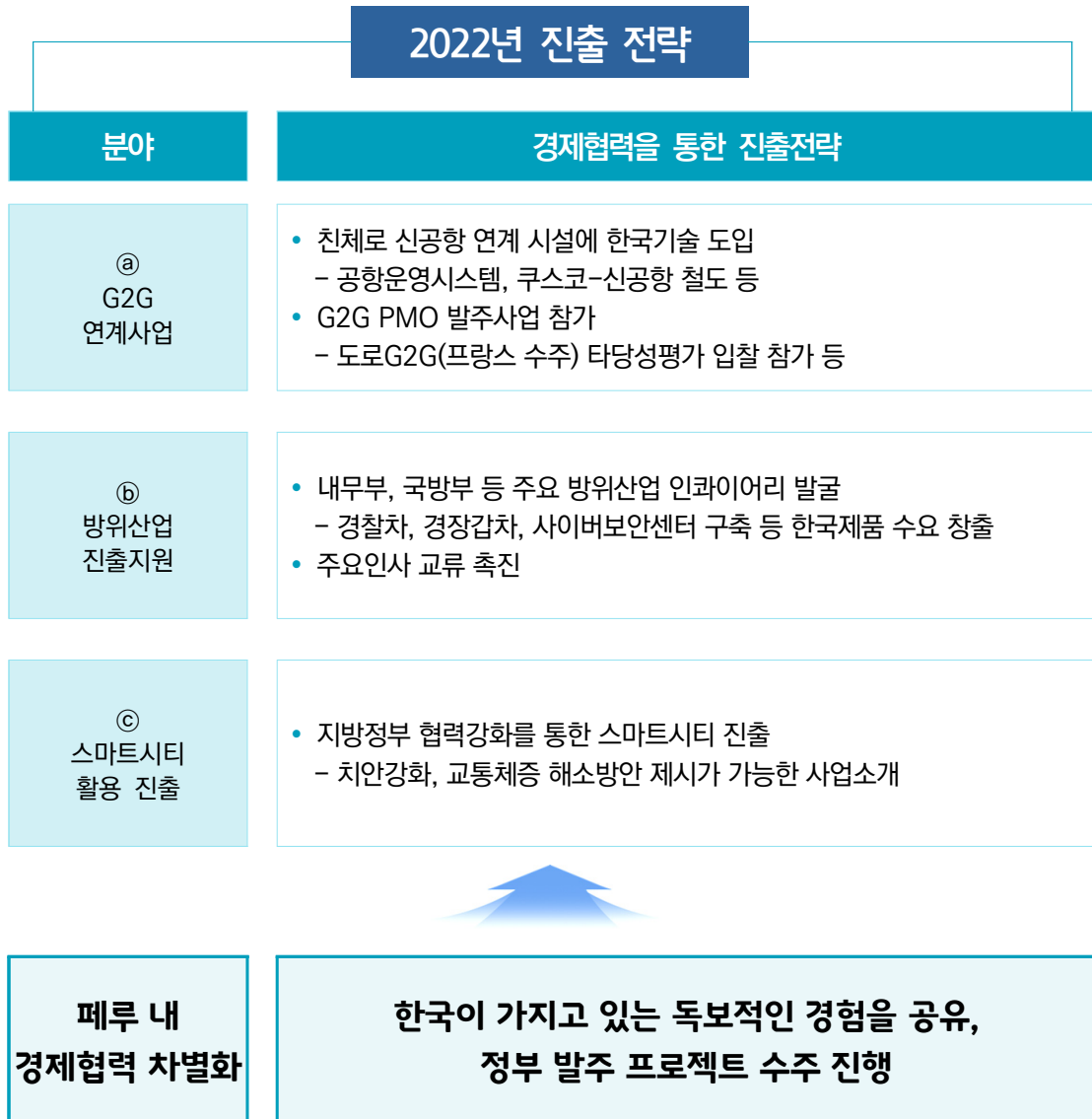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물리적으로 멀고 언어·문화도 다른 중남미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화상상담
 - 정반대 시차로 화상상담 가능시간대가 한정적인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작용
 - 바이어 역시 새로운 비대면 마케팅 방식에 익숙해져, 화상상담 등의 방식을 통한 국내기업 미팅을 선호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초기 상담단계에서 통역 및 상담플랫폼 개선을 지원하여 언어장벽 극복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를 통한 효율적인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 창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무역사절단이 불가피
- 실시된 화상상담 전체에 대한 F/U를 통해 성약창출 지원 강화

3. 한-페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G2G 연계사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외국정부가 개입하는 G2G 방식을 선호
-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G2G PMO 연계 프로젝트 참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 G2G PMO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기업 참여기회 창출 가능
 - PMO 직접 발주 프로젝트 참여, 연계 프로젝트 제안 가능
- 영국, 프랑스 등 타국 G2G PMO 역시 시의성 있는 사업 다수 발주
 - 북부재건(영국 수주), 중부지역 중앙고속도로 건설(프랑스 수주) 등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21년 수주한 G2G PMO 사업 예의주시 필요
 - '21년 상반기 프랑스 수주 중앙고속도로 G2G PMO 사업 등에서 사전 타당성평가, 교통사회 영향평가 등 연계 사업들이 다수 발주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들에 우리기업이 수주를 노리고 있음.
- 친체로 G2G PMO 연계사업 구상
 - 토공사, 본공사 등에 우리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있음.
 - 공항운영시스템, 공항철도 등 관련 사업을 구상하여 정부와 협력여지 있음.
- PPP 방식을 통한 진출도 유망
 - 통상적으로 페루 민자유치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
 - 페루시장은 달러화가 공용화폐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
 - PPP 사업의 경우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작된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외국자본 수익을 보장하고 정책이 안정적이므로 검토 필요

3-2. 방위산업 진출지원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KT-1, 다목적함 등 기존 한-페루 방산교류가 활발
- 치안강화 등을 목적으로 '22년 국방부 등의 예산편성 증대 기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각종 방산교류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KT-1, 다목적함' 뿐만 아니라, 페루 방산전시회(SITDEF)에 연속 참가하여 우리기업의 對페루 방산분야 진출 관심 적극 표명 중
- 국방부, 치안강화를 목적으로 '22년 예산증액 기대
 - '22년은 육군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및 기타 방산제품 구비를 위한 예산으로 방산 인콰이어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수요품목
 - (내무부) 경장갑차, 물대포차 등의 입찰은 '22년으로 연기
 - (해군) 해군기지 이전사업은 프로젝트 재개여부 검토 중('21.10월 기준)
 - (육군)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프로젝트 공고 예정('21.10월 기준)
- 서울방산전시회(ADEX), 페루방산전시회(SITDEF) 등을 통한 발주처 네트워킹

3-3. 스마트시티 활용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페루정부 및 지자체들, 치안/교통 관련 해결책으로 IT인프라망 구축 노력
- 한국 IT 기술을 선호하여 협력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자체의 주요 치적으로 스마트시티 등 IT 프로젝트 추진
 - 페루 국민들의 우선 관심사인 치안 및 교통체증 개선 방안이 화두
 - 스마트시티 관련, 대사관·KOICA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치안/교통 분야 IT인프라망 구축 시스템 제안
 - 치안, 교통 등 분야별 팀코리아 구성 필요
 - KOICA, 해외건설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 협업사업으로 진행
- 스마트시티 워크, GPP 등 수출상담회를 통한 협력기회 마련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20/US\$백만)	242	대한수입액('20/US\$백만)	21
	선정사유	- 중고차 수입규제로 인한 자동차 부품시장 확대 - 페루 내 한국브랜드 점유율이 일본브랜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구성하고 있어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 - 일본, 중국 브랜드가 시장 내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한국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관세율이 0%로 진출여건이 좋음.		
	시장동향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소모품 및 보수용품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주요경쟁사 - Delphi, Denso, Gates 등 - 주요경쟁국 -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진출방안	지사화 기업 대상 지방 바이어 중심 마케팅 확대		
품목명 2	HS Code	8425-8431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20/US\$백만)	851	대한수입액('20/US\$백만)	22
	선정사유	- 광업은 '21년 상반기 기준 GDP의 11.1%를 차지 -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 - 관세율이 0%로 진출여건이 좋음. - 별도 등록과 같은 규제가 없어 진출 용이		
	시장동향	- 저가의 중국제품의 경우 품질 신뢰도가 낮음. -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보장이 필요 - 고산지대에서 운용 가능한 중장비 필요		
	경쟁동향	- 주요경쟁사 - Caterpillar, Komatsu - 주요경쟁국 - 미국, 중국, 브라질, 일본, 독일 등		
	진출방안	현지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에이전트 물색필요		

품목명 3	HS Code	3001-3006	수입관세율(%)	0-0.9
의약품	수입액('20/US\$백만)	1,079	대한수입액('20/US\$백만)	160
	선정사유	○ 코로나19 이후 페루 내 건강관리 제품 수요 증가 ○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등록절차 단축으로 기간 및 비용절감 가능 ○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 진출여건이 좋은 편임.		
	시장동향	○ 페루 등록 시, 안데스공동체 가입국 진출 용이		
	경쟁동향	○ 주요경쟁사 - Roche, Pfizer, Merck, Sanofi, Novartis ○ 주요경쟁국 - 미국, 독일, 인도, 콜롬비아, 멕시코 등		
	진출방안	○ 제네릭 의약품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품목명 4	HS Code	제39류	수입관세율(%)	0
합성수지	수입액('20/US\$백만)	1,924	대한수입액('20/US\$백만)	76
	선정사유	○ 식료품 배달 증가로 플라스틱 수요 증가 ○ 공공투자 활성화로 건설경기 상승 - 석유화학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증가추세 유지 - 프로필렌(수입 3위), 에틸렌(수입 5위) 등이 강세		
	시장동향	○ 가격 및 납기 우선의 시장 - 가격·기간요인이 주요하여 브라질, 콜롬비아 등 근접국 수입량이 많은 편임. - 중국산은 가격은 저렴하나 저품질로 인식됨.		
	경쟁동향	○ 주요 경쟁사 - 3M, DOW ○ 주요 경쟁국 - 미국, 중국, 독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진출방안	○ 상담주선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요창출 - 방한바이어 유치 및 화상상담 주선		

* 수입통계는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 기준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IT 솔루션	선정사유	최근 치안/교통시스템 개선방법에 대해 각종 지자체들에서 스마트시티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페루 내 지자체들에 CCTV 등과 같은 보안장비가 상당수 설치되어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초급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경쟁동향	- Huawei 등 중국계 SI 기업 - 장점 : 파이낸싱, 주요장비 등을 제공하고 수수하는 방식으로 수주 - 단점 : 경험이 없고 구축된 플랫폼이 없음.
	진출방안	관련 인콰이어리 발굴을 현지 주페루 대사관 및 KOTRA 리마무역관에서 진행 중이며, 팀코리아 등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품목명 2		
건설 프로젝트 PMO	선정사유	-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 유망 - PMO 프로젝트는 자재비용 등과 같은 공사비용이 없어 순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됨. -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를 우리 컨소시엄이 수주하면서 향후 다른 PMO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짐.
	시장동향	-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G2G PMO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정부에서 해당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주 중 - 도시 재건, 도로 건설 PMO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 프로젝트 다수 발주 중
	경쟁동향	- 영국, 프랑스, 캐나다(CCC), 스페인(INECO) 등 - 다양한 G2G 입찰경험
	진출방안	- PMO 발주 관련 예의주시 필요 - 정부간 계약으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리마무역관에 확인이 필요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소비재	한·안데스공동체 무역사절단	3월 / 페루 리마
2	G2G	G2G 플랫폼 확대 사업	6월 / 페루 리마 및 볼리비아
3	보건·의료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10월 / 페루 리마
4	프로젝트	중남미 전력기자재 사절단	10월 / 페루 리마

■ (소비재) 한·안데스공동체 무역사절단

- 사업배경 : 페루 수입상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국내 화장품 기업과 페루 바이어 간 상담회 진행
- 시기 및 장소 : '22년 3월 / 페루 리마

■ (G2G) G2G 플랫폼 확대 사업

- 사업배경 : 다양한 정부간 계약 경험을 통한 페루 및 볼리비아 정부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굴
- 진행방향 :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건을 발굴하여 국내기업과 현지 발주처 연결
- 시기 및 장소 : '21년 6월 / 페루 리마 및 볼리비아 La Paz 또는 Santa Cruz

■ (보건·의료)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배경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수출상담회 및 설명회 진행
- 진행방향 : 국내 보건·의료 관련 기업과 페루 바이어 간 상담회 진행
- 시기 및 장소 : '22년 10월 / 페루 리마

■ (프로젝트) 중남미 전력기자재 사절단

- 사업배경 : 한·중남미 수교 60주년의 봄 활용, 전력 기자재 프로젝트 발굴 및 기자재 납품 사업 추진
- 진행방향 :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및 발주처와의 상담회 등 진행
- 시기 및 장소 : '22년 10월 / 페루 리마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선거	'22. 10. 2	주지사, 시장, 구청장 등 선출 (임기 : 2023~2026년)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XPOMINA PERU 2022	'22. 4. 27-29	광업 관련 제품, 중장비 등
EXPOALIMENTARIA 2022	'22년 9월 중	식음료, 식품 산업 관련 기계, 장비 등
EXPOTEXTIL PERU 2022	'22년 10월 중	섬유산업 관련 기계, 장비, 원단 등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 [한국무역보험공사] 페루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민성	과장	리마무역관	51-1-442-9595	ruben33@kotra.or.kr

KOTRA자료 21-272

2022

페루 진출전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인 유정열

편 집 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06792)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127-3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2022 페루 진출전략

